

“공기업 직원으로 첫 추석...시민 삶 증진에 보탬 되고파”

‘첫 취업’ 광주도시공사 새내기

신입사원 19명 신규 임용 “하루하루 걱정·기대 교차 업무 인정 받을때 보람 느껴”

추석의 수확만큼 달콤한 노력의 결실을 맛본 공직 막내들이 있다. 지난 2일 광주 도시공사에 임용된 19명의 신입 사원들이 그 주인공이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일 행정직 8명(일반 행정 7명·전산직 1명), 기술직 11

명(토목직 2명·건축직 3명·전기직 3명) 등 19명을 신규임용했다.

광주도시공사의 새 가족이 된 전기직 신입 사원 김진주(여·24)씨는 “광주도시공사에 입사하기 위해 전기 관련 자격증 취득에 집중했는데 좋은 결과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김씨는 “대학 진학 당시에는 뭘 좋아하는지 몰라 부모님 추천대로 화학공학대에 진학했다”며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전기 설비가 현대에서 가장 필수적인 동력원이라는 것을 깨닫고 전기 시스템의 안정성·효율성을 확보하는 일에 기여하고 싶어했다”고 지원 동기를 밝혔다.

그는 또 “첫 직장이라 하루하루 회사생

활에 대한 걱정과 기대가 교차한다”면서 “업무를 잘 수행해 내지 못할까 걱정도 되지만, 적극적으로 배우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적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등에서 근무하다가 새로운 꿈을 찾아 도시공사에 재도전한 ‘중고 신입’들의 포부도 당차다.

전기직 최형탁(29)씨는 “이전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광주에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기계·전기 등을 다루는 일을 하다가 전기 쪽으로 전문성 있게 가고 싶어 도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씨는 “퇴사 후 가진 것이 경력뿐이어서 2년간 자격증 준비에 매진했다”면서

“퇴사했으니 조금 높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 자격증 공부에 전념한 끝에 합격할 수 있었다”며 활짝 웃었다.

그는 “한 해 동안 농부의 노력과 정성이 결실을 맺는 게 ‘첫 수확’인데, 내게도 도시공사 입사는 같은 맥락”이라며 “현장뿐만이 아닌 지방공기업법 등을 익혀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빠르게 발전하는 직원이 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올 추석은 취준생에서 당당히 공기업 신입 사원으로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된 이들은 취업 준비생들을 향해 명절 나기 응원도 잊지 않았다.

기계직 신입 사원 김민준(29)씨는 “앞

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보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힘든 날들이 많았다”며 “인정도 받고, 업무를 하며 보람을 느끼는 일을 찾다가 1년 6개월간 공부에 매진한 끝에 도시공사 합격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회사에 다니면서 퇴근 후 도시공사 입사를 준비했는데, 앞날을 모르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무기력해질 때마다 도시공사 입사 후 내가 하게 될 일을 상상하며 버텼다”면서 “도시공사가 광주시를 위한 일을 하는 만큼 광주시의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 삶을 증진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는 신념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씨는 “도시공사에 합격했을 때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워 눈물이 났다”며 “취업을 준비하면서 명절에 가족들 앞에 서면 부끄럽기도 했다. 제 이야기가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고 응원의 메시지도 전했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토지 개발, 택지 사업뿐만 아니라 주택·체육 시설·주차 시설 등으로 다양한 만큼 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신규 임용된 직원들이 교육을 잘 듣고 적용해 회사에 잘 적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유독가스 없고 화재 강한 ‘광촉매 황토보드’ 사랑

‘첫 등록’ 조달청 인정 혁신제품

조재훈 유한회사 마나 대표 다공성 광물질구조 보드 개발 조달청 길잡이 사업 도움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서 여러 방면으로 판로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버텨와 이제 날개를 단 것만 같습니다.”

조재훈(27) 유한회사 마나(화순군 동면) 대표이사는 올 7월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인정받은 ‘다공성 광물질 구조의 광촉매 황토보드’를 자랑스레 선보이며 이처럼 말했다.

조 대표가 개발한 실내 건축 마감재는 준불연 보드로, 쉽게 얘기해 타 제품과 달리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고 불이 번지지 않도록 개발된 제품이다.

조 대표는 할아버지때부터 보드를 생산하던 기업 노하우에 기존 제품의 단점을 보완한 황토보드를 개발하게 됐고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다.

혁신제품으로 선정되면 금액 제한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판로가 적은 영세 제조업체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조달청도 직접 혁신제품을 구매해 수요기관에 제공, 제품 피드백을 통한 기술 개선 뿐 아니라 추가 매출이 생길 가능성도 커진다.

조 대표이사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공



화순군 용면의 유한회사 마나 창고동에서 조재훈(왼쪽 네번째) 대표이사가 직원들과 ‘다공성 광물질 구조의 광촉매 황토보드’를 선보이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

공조달 길잡이 사업의 도움을 받아 혁신제품 지정이 가능했다”며 “우수한 제품임에도 홍보 부족으로 판매에 애를 먹는 기업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제도”고 말했다.

지난 7월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뒤 지난 달 첫 계약이 성사됐다. 조 대표는 계약당시를 회상하며 “제품 개발을 위해 4년간 매달렸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며 “건축법이 바뀔때마다 건축 자재도 바뀌게 되는데, 그동안 고생한 직원들과 부모님 생각이 컸다”고 말했다.

조재훈 대표이사는 아버지 조성원(55), 어머니 정숙(54)씨의 도움을 받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사실상 가족회사로, 어린 나이에도 9명의 직원을 두고 회사를 운영해나가는 만큼 책임감도 대단하다. 부모님도 대표 직함을 달고 아들의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조 대표는 혁신제품 지정 이후 첫 계약이 성사되면서 당초 17억원이었던 올해 매출 목표를 30억원으로 올려 잡기도 했다. 특히 최근 건물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가 잦아지면서 마나 제품의 시장 관심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조 대표는 단순 실내 건축 자재를 생산한다는 것 외에도, 지속적인 제품 개발로 건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조 대표는 “부천 호텔 화재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불연재를 생산하다 보니 안전불감증도 점점 커진다”면서 “단순 매출을 위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닌 꾸준한 R&D(연구개발)로 더욱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줄어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내가 만든 전통주 유럽에...맛·품질 인정 뿌듯

‘첫 수출’ 추성고를 ‘대입술’

대한민국식품명인 양대수 담양 특산물 활용 ‘4대 가업’ 獨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입점

“내가 만든 전통주가 유럽에서 팔린다고 생각하거나 일흔이 가까운 나이인데도 어린이처럼 설레고 들뜨네요.” 양대수(68) 추성고를 대표는 일평생 술을 빚어온 명인이다. 실제로 지난 2000년 대한민국식품명인 22호로 지정된 양 명인은 올 하반기 수출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올해로 68세. 도전이 두려울 수도 있는 나이지만, 그는 자신이 만든 대입술의 독일 수출을 앞두고 정준으로 돌아간 것만 같다고 했다.

이번에 독일 수출이 결정된 제품은 ‘대입술’로 양 명인의 고향인 담양 특산물 대나무 잎을 활용해 만든 전통주다. 양 명인의 대입술은 올 하반기 독일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에 입점해 현지인들에게 선을 보이게 된다.

현재 EU 기준의 맞는 성분표를 제작해 번역을 마쳤고, 현지 판매 여건에 맞게 술병 라벨지 제작이 들어간 상태다.

대입술의 독일 수출은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들 두 기관은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에 입점시킬 전통주를 찾던 중 품질과



양대수 명인이 올 하반기 독일 수출을 앞둔 대입술을 들여 보이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맛에서는 정평이 나있던 양 명인의 술을 추천했고, 수출이 결정됐다.

양 명인은 “유럽인 대상 ‘팝파티’와 전통주 체험에서 반응이 좋았다. 수출해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라며 “독일 수출은 성공을 떠나 한국 전통주가 유럽에 향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양 명인에게 이번 수출이 특별한 이유는 또 있다. 지난 2016년 추성고를 대표 상품인 ‘추성주’의 미국 수출을 추진했지만 좌절됐기 때문이다. 양 명인은 “나이들어 빠른 시간 내에 수입을 원했지만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기간이 길어지면서 결국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

최근 ‘K-팝’ 흥행에 힘입어 세계시장에서 ‘K-푸드’의 위상이 급상승하면서 전통주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적기로, 양

명인은 대입술의 성공적인 유럽시장 안착이 국내 타 전통주의 해외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싶다는 바람도 내비쳤다.

양 명인은 “한국 전통주는 세계 주류 품평회에서 항상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아직 알려지지 않아 수출이 어려웠을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통주의 수출은 우리 쌀 소비와도 맞물려 있다. 많은 전통주들이 쌀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통주 인기는 곧 쌀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

양 명인은 끝으로 “대입술의 수출은 전통주 보존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라면서 “환갑을 훌쩍 넘겨 회사 운영을 아들과 딸이 도와 주고 있는데, 안정적인 수출 환경이 만들어져 4대째 이어오고 있는 가업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과정

- 일 시 : 2024. 9. 2(월) 오후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주로478-1:산수오거리-무등산방향 투리보석2층)
- 수강료 : 풍수+사주 = 20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 2024. 8. 26(월) 오후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액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010-2246-1508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2024년 8월 12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4년 11월 14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3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행복한농부
평주광역시 서구 매향로 57번길 29 (매월동)
청산인 정용욱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박정환(821224-1XXXXXX)
• 최후주사 : 순천시 왕궁길 47, 401호(조래동)
피상속인 망 박정환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4스단273호로 신청하여 2024년 8월 22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지 않거나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9월 13일
• 상속인 : 1. 박상진(600713-1XXXXXX)
2. 안미옥(601122-2XXXXXX)
순천시 왕궁길 47, 401호(조래동)
• 신고기간 : 2024. 9. 13. ~ 2024. 11. 23.
• 채권신고주소 : 상속인 1,2의 주소

명당 전원주택 매매

전남 담양군 수북면 병풍산 자락
경치 최고, 공기청정지역, 평지

대지 704py 1층 주택 60py(최고급주택)
카페 및 부속건물 20py (텃밭 100py, 트랙터, 비닐하우스 30py, 화상실 3개)
투자 및 숙박, 요양시설 용지 최고.

매매가 24억(유자 6억 5천)
인수가 17억 5천

010-3646-8700

72년을 밝힌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역안내

북구	• 통 266-1920	• 문 266-1960
	• 특 525-3761	• 신 222-8171
	• 안 571-7638	• 오 266-7801
	• 용 433-1503	• 우 433-1503
동구	• 남 673-6836	• 동 222-9054
	• 동 225-6001	• 중 222-9054
	• 중 222-8171	
남구	• 남 673-6836	• 북 651-1833
	• 남 673-6836	• 송 675-6605
	• 진 671-7276	
서구	• 광 382-5788	• 상 372-2352
	• 서 369-1625	• 문 376-7153
	• 회 376-6511	• 동 603-0311
	• 화 369-1625	
광산구	• 온 952-1687	• 월 959-1920
	• 청 973-2900	• 하 955-0451
	• 광 944-0444	